

2018년 5월 23일

emerics@kiep.go.kr

EU의 팜유사용제한 계획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응



©REUTERS

- EU의 팜유기반 바이오연료 사용금지계획 합의(18.1)¹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 대중국 팜유 수출확대 추진 △ EU와의 협상추진 및 강경한 입장 표명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 대내외 관심이 주목됨.
 - 2018년 5월 7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중국의 인도네시아산 팜오일 수입할당량을 최소 50만 톤 이상 확대하기로 합의함.
 - 이는 인도네시아가 대중국 팜유수출 확대를 통해 대EU 팜유 수출감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²
 - 2018년 5월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계획수정을 위해 EU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합의도출 실패 시 보복조치도 고려하고 있음을 표명함.
 - 이와 함께 정부는 자국의 대표 항공사들이 프랑스 기반의 Airbus사의 항공기를 구매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보복성조치 시행품목을 시사함.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배경은 팜유가 주력 수출품목이며 EU는 인도네시아의 제 2위 팜유 수출시장인 바, 팜유사용제한 계획 실현 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임.
 - 팜유는 인도네시아 1위 수출품목으로, 2017년 수출액은 185억 달러(20조 원)로 전체 수출액의 11.0%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팜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 1위 팜유 수출국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³
 - 또한 인도네시아는 제 1위 팜유생산국으로, 2017년 전 세계 팜유생산량의 55.2%를 생산함.
 - 인도네시아의 2017년 대EU 팜유 수출액은 26.3억 달러(3조 원)로, 이는 전체 팜유수출의 14.2%임.
 - EU는 수입한 팜유 중 약 46%를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⁴ 바이오연료로 팜유가 사용금지될 시 인도네시아 대 EU 팜유수출에 상당한 위축이 예상됨.

1)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팜유 생산 과정에서 열대우림이 훼손되어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2021년부터 바이오 연료에서 팜유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유럽 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의 동의를 남겨둔 상황임.

2) Erwida Maulia(2018.5.7.). "China and Indonesia to boost trade amid global protectionism." Nikkei Asian Review

3) 제 2위 팜유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팜유 관련 EU의 차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협상 중인 말레이시아-EU FTA의 타결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4) Jori Sihvonen(2016), "Europe keeps burning more palm oil in its diesel cars and trucks", p.2

표 1.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품목명(HS Code)	금액	비중
1	팜유(1511)	18.5	11.0
2	석탄(2701)	17.9	10.6
3	석유가스(2711)	8.9	5.2
4	석유(2709)	5.2	3.1
5	천연고무(4001)	5.1	3.0
	기타	113.2	67.1
	전체	168.8	100.0

주 : HS code 4 digit기준임.

자료 : UN Comtrade.

표 2. 인도네시아 팜유 주요수출대상국(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인도	4,895.2	26.4
2	EU	2,634.7	14.2
3	중국	2,068.9	11.2
4	파키스탄	1,459.8	7.9
5	방글라데시	824.6	4.5
	기타	6,630.0	35.8
	전 세계	1,8513.1	100.0

자료 : UN Comtrade.

표 3. 전 세계 팜유 주요 수출국(2016년)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인도네시아	14.4	52.6
2	말레이시아	9.1	33.2
3	네덜란드	1.1	3.9
4	과테말라	0.4	1.4
5	독일	0.4	1.3
	기타	2.1	7.6
	전 세계	27.3	100.0

주 : 2017년 데이터에 미 업데이트된 국가가 존재하여
2016년 사용

자료 : UN Comtrade.

표 4. 전 세계 팜유 주요 생산국(2017년)

(단위: 천 톤, %)

순위	국가명	생산량	비중
1	인도네시아	38,500	55.2
2	말레이시아	20,500	29.4
3	태국	2,700	3.9
4	콜롬비아	1,250	1.8
5	나이지리아	970	1.4
	기타	5,801	8.3
	전체	69,721	100.0

자료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인도네시아와 EU 간 협의결과는 팜유 환경문제⁵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팜유산업 장기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됨.
- EU가 환경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EU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EU 설득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속가능 팜유인증(ISPO)'⁶ 의무가입 확대추진을 통해 환경문제를 고려한 팜유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 중임.
- 이와 동시에 5월 중국의 수입할당량 확대합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EU 외 다른 시장과의 거래 확대나 신시장 개척을 추진해 EU 계획 실현에 대비할 것으로 보임. **EMERiCs**

참고자료

Jakarta Post 등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언론, Wall Street Journal 등

(작성: 신민이 전문연구원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5) EU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열대림을 팜유 농장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을 비롯한 많은 동식물들이 거주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팜유사용 감축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6) 2011년 정부가 만든 인증제도로 팜유생산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관련 규정, 근로자보호 책임 등을 제시함.